

2009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됩니다!

새롭게 개정되는 경험생명표에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이 반영되므로 종신행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

그래서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시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2009년 10월 1일, 경험생명표 변경 예정 종신행 연금보험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!

경험생명표는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며, 2006년에도 제4회 경험생명표에서 제5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. 당시에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였습니다.

[2006년 제5회 경험생명표 변경 당시]



[2009년 10월 1일 경험생명표 변경 예정]

평균수명 증가로
종신행 연금보험의 경우
연금수령액 감소 예상↓
(동일 보험료, 동일 수익률 가정시)

* 상기 연금연액은 공시이율 5.0%를 가정하여 예시된 금액으로 실제 적용된 이율 또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.

경험생명표는 무엇인가요?

경험생명표란 생명보험사에서 고객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통계를 토대로 성별·연령별로 사망할 확률(사망률) 및 잔여수명을 작성한 표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경험생명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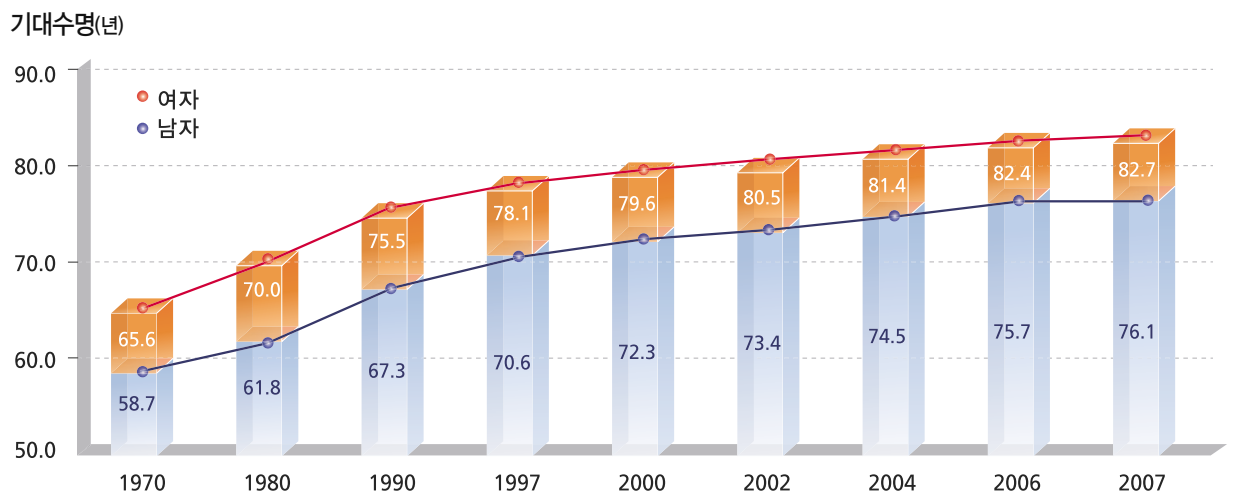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?

현재 생명보험 업계는 제5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지만, 2009년 10월 1일 새로운 경험생명표로 변경예정이며, 여기에는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.



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생존자 수가 많아지고 연금수령자가 많아지면서 1인당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.

▶ 한국인의 기대수명 추이



– 2007년 생명표 작성결과 <통계청 2008년 12월 발표>

그러므로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시면
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